

‘고구마’의 반대말로 ‘사이다’를 쓸 수 있다, 없다?!

고구마와 사이다라니..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 없는 조합이지? 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텐데요. 사실 고구마와 사이다는 아주 큰 공통점이 있어요! 그건 바로... 두구두구두구! 음식이라는 거예요! (죄송)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!

고구마를 먹으면 약간 목이 막히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? 특히 급하게 먹었을 때는 더더욱! 그럴 때 사이다를 마시면 상쾌한 탄산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겠지요? 이렇게 음식으로 고구마와 사이다를 섭취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답답함과 시원함을 비교해 보면 서로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한국에서는 2015년쯤부터 고구마와 사이다가 반대말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. 주로 드라마나 영화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주인공이 항상 당하기만 하거나 질질 끄는 것 같은 내용을 ‘고구마 같은 전개’라고 표현하고 주인공이 푹 부러지게 말하거나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‘사이다 같은 전개’라고 표현합니다.

일상생활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거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‘고구마 같은 상황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것과는 반대로 답답했던 상황이 한 번에 해결될 때에는 ‘사이다 같은 상황’이 왔다고 할 수 있겠지요.

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 A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가 계속 자기는 잘못된 게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만 사과를 요구할 때 여러분은 ‘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’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때 다른 친구 B가 딱 나타나서 ‘그건 A, 네가 잘못된 거잖아!’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‘사이다를 마신 듯한 기분’이 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지금까지 고구마와 사이다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여러분에게 고구마보다는 사이다 같은 상황이 더 많은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! 안녕^^-

최은경 (나가사키 외국어 대학교)